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사이버 불링 주변인으로서의 방어행동 간의 관계: 도덕적 이탈과 죄책감의 매개효과*

유 정 임

홍 혜 영[†]

명지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학생

교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사이버 불링 주변인으로서의 방어행동 간의 관계에서 그들의 도덕적 이탈과 죄책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궁극적으로는 실제 사이버 불링 상황의 피해를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로 기능하는 주변인의 방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477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척도, 방어행동 척도, 도덕적 이탈 척도, 죄책감 척도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구조방정식 모형과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효능감은 도덕적 이탈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죄책감 및 방어행동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도덕적 이탈은 죄책감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죄책감은 방어행동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둘째, 자기효능감과 방어행동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과 죄책감은 모두 유의미한 개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효능감과 방어행동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과 죄책감은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도덕적 이탈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높은 죄책감을 유발하여 방어행동을 수행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집단 내에서 사이버 불링의 심각성을 완화하는 중요한 기능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포함하였다.

주요어 : 사이버 불링, 주변인, 방어행동, 자기효능감, 도덕적 이탈, 죄책감

* 본 연구는 유정임(2019)의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사이버 불링 주변인의 방어행동 간의 관계 - 도덕적 이탈과 죄책감의 매개효과 -’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홍혜영, 명지대학교 상담심리학과, (03674) 서울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Tel : 02-300-0899, E-mail : hyhong@mju.ac.kr

항상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뒤에는 새로운 현상이 따라오기 마련이다. 새로운 현상은 우리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한다(홍명기,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함께 스마트폰의 보급과 인터넷 사용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이버공간은 우리에게 다양하고 활발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더불어 ‘Cyber bullying’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가져오기도 했다(전대성, 김동욱, 2015; Beran & Li, 2008). 여기서 Cyber bullying이란 국내 학계에서 2010년부터 사이버 불링이란 용어로 쓰이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사이버 폭력, 사이버 왕따 또는 사이버 괴롭힘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 청소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용어인 사이버 불링으로 채택하여 사용하고자 한다(김신아, 방은혜, 한윤선, 2017).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은, ‘Social Network Service(SNS),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채팅방, 이메일 등 스마트폰과 인터넷 같은 전자매체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반복적인 행동’으로 정의되고 있다(송지연, 2016; 임상수, 2015; Bonanno & Hymel, 2013).

최근 사이버 불링이 포함된 사이버 범죄의 발생 현황이 2004년 61,709건에서 2019년 180,499건으로 15년간 약 3배가량 급증함에 따라(경찰청사이버안전국, 2019), 사이버 불링 현상에 대한 연구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조영은, 2017; Bonanno & Hymel, 2013). 특히 20대의 사이버 불링 가·피해 경험율과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이 중고등학생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을 보인다는 사이버폭력 실태조사(한국방송통신위원회, 2016)와 함께 대학생도 입학 후 사이버 불링을 자주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으며(Schenk & Fremouw, 2012), 최근 대학생의 사이버 불링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도 전체 대상자의 64.2%가 피해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박완경, 운명숙, 2015). 대학생의 경우 학교생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조별과제, 스터디 그룹, 동아리 활동으로 인해 학교 동기, 지인들과 자주 SNS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 놓여있으며(풍일척, 2018), 미성년자인 중·고등학생과 달리 부모님이나 교수들의 밀착 지도가 어렵다는 점에서 대학생의 사이버 불링 심각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전대성, 김동욱, 2015). 그럼에도 과거 사이버 불링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학교폭력예방법의 보호를 받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소외되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제시된 청소년 대상 사이버 불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폭넓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 대상을 대학생 집단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사이버 불링의 양상을 살펴보면, 기존의 오프라인 불링처럼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그 피해자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한다는 점 등의 일부 공통된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송지연, 2016), 사이버 불링은 오프라인 불링과 달리 익명성과 비대면성의 특성을 지닌다. 또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어 피해가 한 번 시작되면 빠르고 넓게 확산되고 피해의 증거가 오래 남기 때문에 오프라인 불링보다 더 심각한 피해로 보기도 한다(이수경, 오인수, 2012; 임상수, 2015). 한편, 오프라인 불링과 달리 사이버 불링의 비대면성은 사이버 불링 상황을 목격한 이들(이하 ‘주변인’이라 한다)

에게 가해자와 주변인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인상을 주어, 주변인은 보복의 위협을 적게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괴롭힘 상황을 바로 잡거나 피해자를 위로하고 지지하는 행동을 보인다는 연구가 있다(Beran & Li, 2008; Brody & Vangelisti, 201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대면성에 주목하여 오프라인 불링 주변인에 대한 연구결과가 사이버 불링 주변인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혹은 사이버 불링만의 특수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사이버 불링의 최근 연구 양상은 사회적 맥락을 강조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변인까지 포함시켜 집단 역동적 관점으로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늘고 있다(정아혜, 2014; 최기원, 2012; Salmivalli, Voeten, & Poskiparta, 2011). 특히, 지난 20년간 국내외 오프라인 불링에서 주변인의 행동이 괴롭힘 상황을 멈추게 할 수도, 지속시킬 수도 있는 중요한 단서라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기도 했다(이영기, 2016, Hawkins, Pepler, & Craig, 2001). 여기서 주변인의 행동 양상은 괴롭힘을 돕거나 부추기는 동조행동, 괴롭힘을 목격하고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거나 모른 척하는 방관행동, 상황에 개입하여 괴롭힘을 멈추게 하거나 피해자를 돕는 방어행동이라는 세 가지 역할로 구분되는데(서미정, 2008; Salmivalli, Lagerspetz, Bjorkqvist, Osterman, & Kaukiainen, 1996), 본 연구는 괴롭힘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주변인의 방어행동을 주목하고자 한다.

최근 이루어진 주변인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방어행동에 대한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서미정, 2013; 이승연, 2014; 정아혜, 2014; Barchia & Bussey, 2011), 주변인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과거 방어행동에 대한 연구가 오프라인 불링에만 치중되어 있어 사이버 불링 주변인의 방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떤 심리적 요인이 주변인의 방어행동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여, 사이버 불링의 예방대책에 대한 적절한 심리적 개입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변인의 방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자기효능감은 대표적인 심리적 특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 개인적인 유능감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된다(Bandura, Barbaranelli, Capara, & Pastorelli, 1996). 남녀 청소년의 또래 괴롭힘 방어행동 관계를 살펴본 김은아, 이승연(2011)의 연구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자기효능감이 주변인으로서의 방어행동의 관계에서 높은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승연(2014)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방어행동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쳤다. 또 홍솔지(2014)의 연구에서도 주변인의 도움행동에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김민지(2013)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과 주변인의 방어행동이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괴롭힘 상황에서 자기효능감이 방어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일관되게 검증해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사이버 불링 주변인의 방어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자기효능감과 방어행동 간의 매개변인을 설정하여 좀 더 정교한 경로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기능수준에 통제력을 행사하여 자기규제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작용한다(곽금주, 1998). 자기규제 기제는 도덕적

행위에도 작용하는데, 자신의 내적 기준이 자기규제에서 벗어나 도덕적으로 이탈하게 되면 해로운 행동을 허용하게 된다. 즉, 만족감과 자기가치감 같이 긍정 정서를 유발하는 행위는 수행하고, 자기비난과 같이 부정 정서를 유발하는 행위는 도덕적 기준에 위배되기 때문에 제한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Bandura et al., 1996).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 이탈(moral disengagement)이란 자기 조절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지 왜곡으로, 자신이 저지른 비도덕적 행동을 해로운 행동이 아니라는 합리화를 통해 이를 정당화 하는 것이다(이숙정, 육은희, 2013; Bandura et al., 1996). 이러한 도덕적 이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자기규제에 대한 효능감을 높여주는 것임을 제안한 콰금주(1998)의 연구가 있으며,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이 도덕적으로 이탈될 가능성이 낮고 가출하는 경향이 적다고 보고된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2006)의 연구를 통해서도 자기효능감이 도덕적 이탈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자신이 비난 받을만한 행동을 정당화 시키지 않는 사람, 즉 도덕적 이탈을 적게 사용하는 사람은 괴롭힘 상황에서도 자기규제 기제를 작동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사이버 불링 상황을 마주한 대학생은 도덕적인 기준을 어기는 대신 피해자를 위로하거나 돕는 방어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예측은 도덕적 이탈이 방어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신서란, 2014). 또한 괴롭힘 연구에서 방어자로 분류된 초등학생이 가해자나 동조자보다 낮은 도덕적 이탈을 보였고(Gini, 2006), 중학생 연령에서도 도덕적 이탈이 방어행동과 유사한 친사회적 행동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Bandura, 2001).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도덕적 이탈이 주변인의 방어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주변인의 방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공정성, 죄책감, 수치심, 애착, 정서조절, 공감, 마음읽기 능력 등이 있으며(송경희, 이승연, 2010; 최기원, 2012; 홍솔지, 2014), 대부분 도덕적 정서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죄책감이라는 변인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 마음으로 정의되며(국립국어 연구원, 1999), 이를 대인간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차원으로 이해한다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러한 죄책감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행동을 하게 돕는다는 점에서 ‘도덕적 정서’로 정의되기도 한다(최기원, 2012; Tangney, 1998).

스스로 저지른 비도덕적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는 죄책감은 인간을 건설적이고 도덕적으로 움직이게 하며(송수민, 2008),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여 더 높은 수준의 긍정 행동을 하도록 조력하게 한다(Tangney & Dearing, 2002). 이러한 죄책감이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제시한 연구가 있다. 기부 의도에서 높은 자기효능감이 더 많은 죄책감을 유발하도록 작용한다는 정적 영향을 밝혀냈으며(Basil, Ridgway, & Basil, 2008),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자기효능감과 도덕적 책임감에 관한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도덕적 책임감에 강력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종국, 문민경, 2017). 또한 자기효능감과 죄책감의 정적 상관이 금연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최유진, 전승우, 박준우, 2018), 자기효능감이

죄책감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죄책감과 주변인의 방어행동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송경희, 이승연(2010)의 연구에서 죄책감이 주변인의 방어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생의 방어행동을 살펴본 최기원(2012)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의 죄책감은 방어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남학생은 정적 상관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된다. 또 방어행동과 비슷한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아동의 경우, 다른 아동에 비해 더 많은 죄책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으며(Menesini & Camodeca, 2008), 높은 수준의 죄책감을 보고하는 아동일수록 부정적인 행동을 더 수정하려는 시도를 보였다는 연구를 통해서도 죄책감이 긍정적인 행위인 방어행동에 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Tangney, 1998). 이처럼 죄책감은 방어행동과 비교적 일관된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사이버 불링과 관련하여 검증된 연구는 거의 부족한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도덕적 정서인 죄책감이 자기효능감과 주변인의 방어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죄책감은 자기 자신과 도덕적 규범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자기 행동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야 발현될 수 있는 변인이기 때문에(유경, 민경환, 2002), 자신의 행동을 판단한 결과가 부정적일 때 자기 처벌적인 정서를 갖게 된다고 한 도덕적 인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판단된다(최기원, 2012). 실제 연구에서도 괴롭힘 상황에서 도덕적 이탈(도덕적 인지) 및 죄책감(도덕적 정서)이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서미정, 2013), 도덕적 이탈과 규칙위반행동이 죄책감과 관계에서 부적 상관을

나타내기도 했다(김경연, 하영희, 2003). 이렇게 도덕적 이탈(도덕적 인지)과 죄책감(도덕적 정서)간의 부적 상관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된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도덕적 인지가 정서에 선행한다는 입장과 도덕적 정서가 인지에 선행한다는 반대 입장이 연구자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서미정(2013)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덕적 이탈과 죄책감 간의 관련성 유추를 통해 도덕적 인지가 선행한다는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이는 비윤리적인 행동에 핑계를 만들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여 재해석할 경우, 죄책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감에서 자유로워질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Bandura et al., 1996), 나아가 이러한 도덕적 이탈은 사이버 불링을 목격한 주변인이 피해자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외면할 때 느끼게 될 죄책감의 활성화를 억제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도덕적 이탈이 죄책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낮은 도덕적 이탈을 형성하게 되며 그로 인해 강한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 사이버 불링 상황에서 피해자를 위해 방어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사이버 불링 주변인으로서의 방어행동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과 죄책감을 매개변인으로 가정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증은 방어행동을 하는 주변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 방어행동의 활발한 기능을 위해 필요한 핵심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이버 불링 상황에서 주변인들이 어떻게 효과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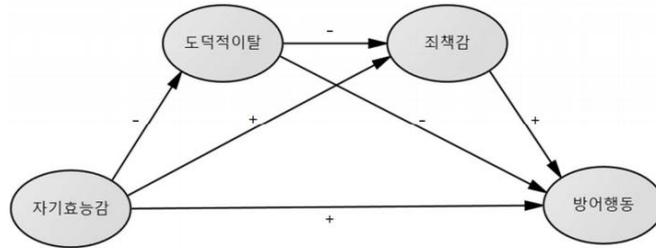


그림 1. 연구가설 모형

밝혀 대학생들의 사이버 불링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사이버 불링의 예방책 마련과 임상 및 상담자의 교육장면에서 사이버 불링을 목격한 주변인이 방어행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개입방법을 제안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효능감, 도덕적 이탈, 죄책감, 사이버 불링 주변인의 방어행동은 유의미한 상관이 있을 것이다. 둘째, 사이버 불링 주변인의 자기효능감과 방어행동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과 죄책감은 각각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셋째, 사이버 불링 주변인의 자기효능감과 방어행동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과 죄책감은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가설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

주, 대전 지역 등에 위치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477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총 477명 중 남자 189명(39.6%), 여자 288명(60.4%)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비율이 더 높았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116명(24.3%)으로 가장 많았고, 4학년 108명(22.6%), 2학년 105명(22.0%), 3학년 91명(19.1%), 휴학 57명(11.9%) 순이었다. 전공별로는 공학계열이 146명(30.6%)으로 가장 많았고, 인문계열 95명(19.9%), 사회계열 82명(17.2%), 자연계열 44명(9.2%), 예체능계열 42명(8.8%), 기타 26명(5.5%), 교육계열 22명(4.6%), 의약계열 20명(4.2%)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이 대부분 손쉽게 인터넷과 모바일을 사용할 수 있고, 지필 응답보다는 모바일 응답이 훨씬 더 친숙한 20대 초반의 대학생임을 감안하여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70명(남 35명 여 3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방어행동 척도, 자기효능감 척도, 도덕적 이탈 척도, 죄책감 척도 모두 신뢰도가 안정적으로 확인되어 본 조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카페, SNS

계정을 통해 설문요청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연구 참여 설명서(1)’를 통해 학생들에게 본 연구에 대한 목적, 응답 예상 소요시간, 응답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연구 참여 동의서(2)’를 통해 ‘동의’를 얻은 학생에 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응답을 완료한 대학생 전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지역 등에 위치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중에서 미응답이거나 전체 문항에서 동일한 응답을 보이는 등 불성실하게 응답한 23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477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 도구

참여자 역할 유형 중 방어행동 척도

방어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Salmivalli와 동료들(1996)이 고안한 참여자 역할 유형 질문지 (Participant Role Questionnaire: PRQ)를 서미정(2008)이 국내 상황에 맞게 수정·번안한 것을 바탕으로 고아라, 최새은(2016)이 사이버 불링 상황에서 연구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방관행동(6문항), 동조행동(6문항), 방어행동(6문항)의 내용이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방어행동에 해당하는 6문항(예: “나는 다른 친구들에게 사이버 불링을 당하는 친구를 함께 도와주자고 할 것이다.”)을 사용하였다. 세 가지 참여자 역할 척도 중 방어행동 척도만 사용한 것은 본 연구가 방어행동에 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방관행동과 동조행동을 제외하고 주도적인 방어행동 집단만을 선별해내기 위함이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

렇다(5점)’까지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방어행동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고아라, 최새은(201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9였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값은 .86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척도

자기효능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바탕으로 Sherer와 Maddux(1982)에 의해 제작된 자기효능감 척도 (Self Efficacy Scale, SES)를 홍혜영(1995)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일반적 자기효능감(General Self-efficacy)’과 대인관계에서의 사회, 기술적 요소를 측정하는 ‘사회적 자기효능감(Social Self-efficacy)’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 자기효능감 17문항(예: “나는 계획대로 일을 수행할 수 있다.”), 사회적 자기효능감 6문항(예: 친구가 보고 싶으면와 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내가 먼저 간다.”)인 총 23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홍혜영(1995)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 값은 .86이며, 두 하위 요인의 Cronbach’s α 값은 각각 .86과 .68이었고, 본 연구의 전체 Cronbach’s α 값은 .90, 두 하위 요인의 Cronbach’s α 값은 각각 .89와 .76으로 나타났다.

도덕적 이탈 척도

도덕적 이탈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Bandura와 동료들(1996)이 제작한 도덕적 이탈 척도(Mechanisms of Moral Disengagement Scale:

MDS)를 서미정과 김경연(2006)이 번안하여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미정과 김경연(2006)의 연구에서 문항 양호도를 검토하여 3문항을 제외한 것과 동일하게 본 연구에서도 총 29문항(예: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에 비하면, 깔보며 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아주 많이 그렇다(5점)’까지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도덕적 이탈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서미정과 김경연(200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3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값은 .80으로 나타났다.

죄책감 척도

죄책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Tangney, Wagner, & Gramzow(1989)가 개발한 TOSCA(자기-의식적 정서)를 바탕으로 류설영(1998)이 국내 상황에 맞게 수정·번안한 문항 중 죄책감에 해당하는 12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Tangney에 의해 개발된 TOSCA는 수치심과 죄책감의 두 가지 하위척도를 포함하며 자기-의식적 정서 또는 도덕적 정서, 사회적 정서로 불리기도 한다. Tangney의 여러 연구(1989, 1998, 2002)에서도 수치심과 죄책감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중 죄책감은 주로 행동에 초점(예: “나는 잘못된 행동을 했다.”)을 맞추는 반면, 수치심은 자아에 초점(예: “나는 나쁜 사람이다.”)을 맞추는 변인으로 설명된다. 이에 따라 죄책감이 자신의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에 더 초점을 맞춘 척도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본 연구 주제인 방어행동과 더 관련이 있는 변인인 죄책감에 해당하는 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

도이며, 상황으로 제시된 문항에 대한 반응을 답하는 것으로(예: “상황 - 당신은 편의점에서 무엇에 걸려 넘어져서 친구의 음료수를 엮질렀다. 당신은?”, “반응 - 나는 친구에게 미안하게 느낄 것이고, 내가 잘 보고 갔어야 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1점)’부터 ‘아주 그럴 것이다(5점)’까지로 평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죄책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류설영(199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70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값은 .80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1.0 프로그램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가설을 검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자료의 전반적인 기술통계량을 분석하기 위해 SPSS 21.0을 사용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각 측정도구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고, 수집된 자료들의 일반적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였다. 셋째, 측정변인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SEM)을 실시하고,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경로계수 값을 산출하였다. 여섯째, 변인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살펴보고,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일곱째, Phantom

변인을 사용하여 간접 경로들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여 개별매개효과와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25, $p < .01$)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 도덕적 이탈은 죄책감($r = -.25, p < .01$)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죄책감은 방어행동($r = .41, p < .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결과는 표 1과 같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연구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주요 변인의 일반적인 경향성과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각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에서는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Lei & Lomax, 2005), 분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요 변인 간의 관련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효능감은 도덕적 이탈($r = -.18, p < .01$)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죄책감($r = .36, p < .01$)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방어행동($r =$

측정모형 생성 및 검증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구인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고 추정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으므로, 지표의 대표성과 모형의 적합도, 추정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고려하여 문항 묶음 방식을 통해 모형을 성립하고 측정변인의 개수를 생성하였다(김수영, 이지현, 2016). 이 때 측정변인이 3개 이상일 경우, 각 잠재변인의 요인분석이 적절하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우종필, 2012) 본 연구도 측정변인을 3개로 생성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전체 문항을 하나의 단일 요인으로 측정한 도덕적 이탈, 죄책감, 방어행동의 3

표 1. 주요 변인 간의 상관분석 결과 및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변 인	자기효능감	도덕적 이탈	죄책감	방어행동
자기효능감	1			
도덕적 이탈	-.18**	1		
죄책감	.36**	-.25**	1	
방어행동	.25**	.05	.41**	1
M	3.41	2.15	3.75	3.37
SD	0.54	0.38	0.59	0.73
왜도	-0.23	0.16	0.08	0.56
첨도	0.44	0.04	-0.38	-0.23

주. ** $p < .01$

가지 잠재변인은 각각 3개의 꾸러미로 문항 묶음을 진행하였고, 2개의 하위 요인으로 측정된 자기효능감은 선행 연구에 따라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으로 측정변인을 생성하였다. 문항 묶음은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표준 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최대우도법(ML)을 따랐다.

본 연구의 요인부하량 표준화 값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은 .65~.85, 도덕적 이탈은 .69~.85, 죄책감은 .61~.94, 방어행동은 .80~.89로 모두 .50이상이었고, 유의성(C.R.)이 7.84~24.20으로 나타나 1.96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어 측정모형이 집중타당도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파악하기 위해 χ^2 검증과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chi^2=110.00(p<.001)$, $df=38$, $TLI=.96$, $CFI=.97$, $RMSEA=.06(90\%$ 신뢰구간에서 $.05\sim.08$)로 나타나 모두 적절한 적합도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모형 검증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역시 측정모형과 동일한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2와 같다. 본 연구의 구조관계는 포화모형에 따라 분석이 진행되었으므로 측정모형과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같다. 다만 측정모형은 잠재변인 간 경로가 포함되지 않은 모형으로 잠재변인과 관측변인 간의 관

계로 해석되며, 연구모형은 잠재변인들 간의 관계에 관한 구조이론을 적용하는 것으로 인과관계를 결정하는 것이다. 즉 측정모형의 경우 잠재변인 간의 관계가 양방향으로 관계성만을 보이는 데 비해 연구모형의 경우 잠재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한 방향으로 분명하게 명시하므로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된다(김수영, 2016).

연구 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검증되었으므로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았다. 자기효능감이 도덕적 이탈을 추정한 경로($\beta=-.20, p<.001$)는 부적으로 유의했고, 자기효능감이 죄책감을 추정한 경로($\beta=.42, p<.001$)와 자기효능감이 사이버 불링 주변인의 방어행동을 추정한 경로($\beta=.20, p<.001$)는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또 도덕적 이탈이 죄책감을 추정한 경로($\beta=-.13, p<.05$)는 부적으로 유의했고, 도덕적 이탈이 방어행동을 추정한 경로($\beta=.19, p<.001$)는 정적으로 유의했으며, 죄책감이 방어행동을 추정한 경로($\beta=.35, p<.001$)는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결과는 그림 2와 표 3에 제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 사용된 각 잠재변인들 간의 직접적인 경로와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살펴보았다. 간접효과 크기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표 2.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p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연구모형	110.00	38	.000	.96	.97	.06 (.05-.08)

표 3.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B	S.E	β	t(C.R.)
자기효능감	→ 도덕적 이탈	-.15	.04	-.20***	-3.41
자기효능감	→ 죄책감	.38	.06	.42***	6.65
자기효능감	→ 방어행동	.31	.09	.20***	3.33
도덕적 이탈	→ 죄책감	-.15	.06	-.13*	-2.49
도덕적 이탈	→ 방어행동	.40	.11	.19***	3.81
죄책감	→ 방어행동	.60	.10	.35***	5.94

주. * $p < .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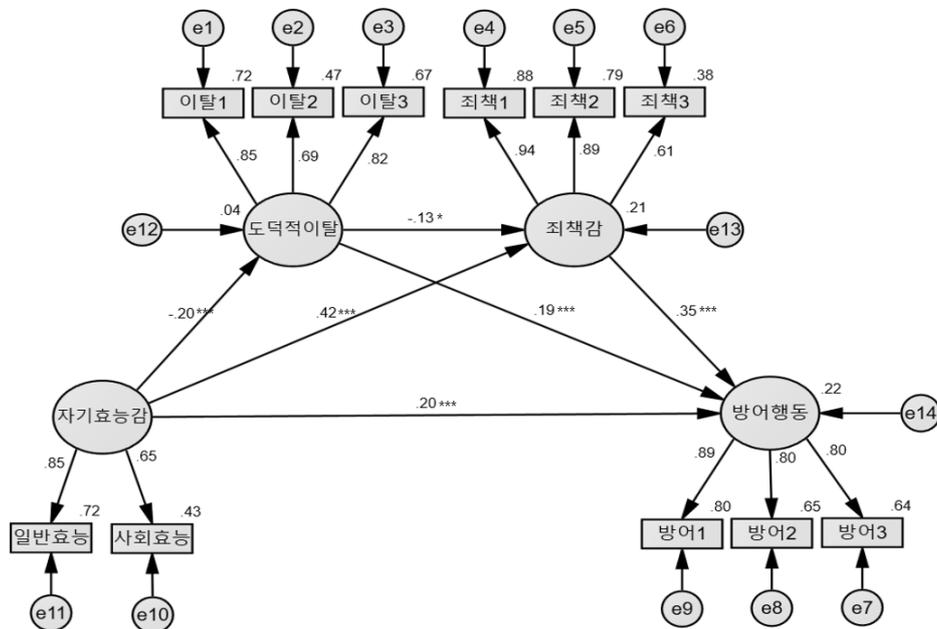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검증

서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여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77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5,000번의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고, 이 때 간접효과의 추정치에 대한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이 도덕적 이탈을 매개로 하여 죄책감에 이르는 간접효과 경로($\beta=.03, CI=.01 \sim .05, p < .05$), 자기효능감이 도덕적 이탈과 죄책감을 매개로 하여 주변인의 방어행동에 이르는 간접효과 경로($\beta=.12, CI=.06 \sim .18, p < .01$), 도덕적 이탈이 죄책감을 매개로 하여 주변인의 방어행동

표 5. Phantom Variable을 이용한 개별매개효과와 이중매개효과 분석 결과

	경로	Estimates	S.E	95% 신뢰구간	
				lower	upper
자기효능감	도덕적 이탈 → 방어행동	-.06***	.02	-.123	-.021
자기효능감	죄책감 → 방어행동	.23***	.05	.156	.329
자기효능감	→ 도덕적 이탈 → 죄책감 → 방어행동	.01**	.01	.001	.034

주. ** $p < .01$, *** $p < .001$. 숫자는 비표준화 계수임.

관계 경로가 $X \rightarrow M1(\text{부적 영향}) * M1 \rightarrow M2(\text{부적 영향}) * M2 \rightarrow Y(\text{정적 영향})$ 으로 분석되므로, 이중매개효과가 정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사이버 불링 주변인으로서의 방어행동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과 죄책감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별 매개효과와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궁극적으로는 대학생들이 실제 사이버 불링 상황을 목격했을 때 집단 내에서 주변인으로서 방어행동을 수행하여 사이버 불링의 심각성을 완화하는 것이며, 이러한 방어행동의 역할이 더 활발히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477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직·간접적 경로를 설정하여 구조모형을 검증하였고, 도덕적 이탈과 죄책감의 이중매개효과 확인을 위해 Phantom Variable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변인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자기효능감은 방어행동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자기효능감과 방어행동의 정적 상관관계를 밝힌 선행연구(김민지, 2013; 김은아, 이승연, 2011; 남미애, 홍봉선, 2015; Thornberg & Jungert, 2013)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사이버 불링 상황에서 주변인으로서 방어행동을 하도록 기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자기효능감은 도덕적 이탈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자기효능감과 도덕적 이탈의 부적 상관관계를 밝힌 선행연구(곽금주, 1998; 박영신 등, 2006; Albouza, d'Arripe-Longueville, & Corrion, 2017; Fida, Tramontano, Paciello, Ghezzi, & Barbaranelli, 2018)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즉, 사이버 불링을 목격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높은 대학생들은 적절하지 않은 동조행동이나 방관행동보다는 방어행동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죄책감과도 유의미한 정

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자기효능감이 죄책감과 정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한 최유진 등(2018)의 연구와 Basil et al (2008)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그동안 부정적 정서로만 인식되었던 죄책감이 자기효능감과 상호작용을 통해 비윤리적인 행동을 완화시키고, 윤리적 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다. 이는 건강행동 분야에서 밝혀진 선행연구(Floyd, Prentice-Dunn, & Rogers, 2000; Witte, 1992)와 같이 자기효능감과 죄책감의 상호작용이 긍정적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이 확인된 결과이다.

한편, 도덕적 이탈은 죄책감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초자아가 발달된 사람일수록 양심이 유발하는 죄책감으로 인한 불편감을 회피하기 위해 규칙위반행동을 억제한다는 선행연구(서미정, 2013; 송경희, 이승연, 2010; Bandura et al., 1996; Thornberg & Jungert, 2013)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도덕적 이탈이 낮은 대학생일수록 사이버불링 상황을 목격했을 때 피해자를 돕지 않는 행동에 대해 더 큰 죄책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죄책감은 주변인의 방어행동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죄책감 수준이 낮을수록 가해 동조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서미정(2013)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며 죄책감이 방어행동과 정적인 상관을 맺고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송경희, 이승연, 2010; 최기원, 2012; Johnson & Connelly, 2016) 결과와도 일치한다. 즉, 죄책감을 많이 느낄수록 사이버 불링 피해자의 어려움을 무시하는 방관행동이나 피해를 부추기는 동조행동보다 죄책감에서 오는 불편감을 경감시키기 위해 피해상황을 자신이 도와야하는 상황으로

간주하여 피해자를 돕는 방어행동이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자기효능감과 방어행동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방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자기효능감이 도덕적 이탈을 거쳐 방어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괴롭힘 상황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도덕적 이탈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로 인해 더 많은 방어행동을 수행하게 된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곽금주 1998; 송경희, 이승연, 2010; 신서란, 2014),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도덕적 이탈과 방어행동 간의 관계를 부적 영향으로 예측한 연구가설과 달리 연구 결과는 정적 영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덕적 이탈과 방어행동 간의 경로에서 죄책감이 매개함에 있어서 억제효과가 나타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조화진, 서영석, 2010; 유현욱, 홍혜영, 2015; Lancaster, 1999). 여기서 억제효과(suppression effect)란, 어떤 한 변수가 억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Mackinnon, Krull, & Lockwood, 2000). 그러나 팬텀 변인을 활용한 매개효과 검증 결과, 자기효능감과 방어행동 간의 관계를 도덕적 이탈이 부적으로 매개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도덕적 이탈이 중요한 매개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 불링 상황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도덕적 이탈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과적으로 방어행동을 더 많이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자기효능감과 방어행동 간의 관계에서 죄책감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방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동시에 자기효능감이 죄책감을 거쳐 방어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방어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 김은아, 이승연(2011)와 홍솔지(2014), Albiero, Benelli와 Altoè(2008)의 연구, 괴롭힘 연구에서 주변인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남미애, 홍봉선(2015)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괴롭힘 상황에서 방어자의 자기효능감을 살펴본 Thornberg와 Jungert(2013)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즉, 자신의 효능감을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대학생일수록 죄책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 사이버 불링 상황을 목격했을 때 주변인의 역할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방어행동을 더 많이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자기효능감과 방어행동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과 죄책감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도덕적 이탈과 죄책감이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중매개효과에서는 단순매개와 이중매개의 효과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죄책감이라는 특정 매개변인의 강력한 영향으로 자기효능감이 도덕적 이탈을 매개로 하여 방어행동으로 가는 경로의 계수 값이 부적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이중매개효과에서 유의성과 방향성이 연구 가설모형에 따라 정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므로 이중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이버 불링 주변인의 경우 죄책감이 높다는 요인 하나만으로 방어행동을 예측하는 것보다 본 연구에서 검증된 정밀한 경로와 같이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도덕적 이탈이 낮아지면서 죄책감이 높아져서 주변인의 방어행동

이 증가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도덕적 이탈을 적게 나타낸다고 주장한 Albouza et al.(2017)의 연구를 비롯해 자기효능감, 도덕적 이탈, 부정행위의 상호작용을 연구한 Fida et al.(2018)의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또 괴롭힘 상황에서 가해동조자의 경우 도덕적 이탈이 높을수록 낮은 죄책감을 보인다고 밝힌 서미정(2013)의 연구, 청소년 연구에서 높은 죄책감을 보일수록 방어행동을 많이 한다고 주장한 최기원(2012)의 연구를 뒷받침 하는 결과다. 즉 자기효능감이 방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동시에, 높은 자기효능감을 형성한 대학생이 낮은 도덕적 이탈을 보이게 되고, 높은 죄책감을 유발하여 그로 인해 나타나는 불편감을 줄이고자 피해자를 지지하고 돕는 방어행동을 한다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밝힌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효능감이 방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도덕적 이탈과 죄책감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확인 되었으므로 두 변인을 통해 더욱 정교한 교육 프로그램 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무엇보다 죄책감은 억제변인으로서 기능할 만큼 매개효과 중에서도 매우 강력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제에 대해 정교히 탐색해 보는 일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방어행동을 수행하는 대학생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효과적인 개입을 통해 대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도덕적 이탈은 인지 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변인이기 때문에 방어행동을 촉진하는데 교육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통해 대학생들의 사이버 불

링 예방책 마련과 더불어 임상 및 상담 장면에서 사이버 불링을 경험한 대학생들을 마주하는 전문가가 사이버 불링 현상을 이해하고 개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사이버 불링과 관련하여 가해자나 피해자 중심의 이전 연구와는 달리 예방 및 중재에 중요한 역할인 방어행동을 수행하는 개인의 특성에 주목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개입도 중요하지만 주변인의 방어행동을 증가시킨다면 집단 내에서 사이버 불링을 멈출 수 있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에 방법의 제도적 울타리에서 벗어나 있는 대학생들을 보호하는 요인으로 기능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기존 사이버 불링 연구에서 활발히 다뤄지지 않은 도덕적 이탈(도덕적 인지)과 죄책감(도덕적 정서)을 이중매개로 설정하여 주변인의 방어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 보다 복합적이고 정교한 경로를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사이버 불링 주변인의 경우 도덕적 이탈이 낮다는 요인 하나만으로는 방어행동을 예측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증된 경로와 같이 자기효능감이 높고, 도덕적 이탈이 낮으면서 죄책감이 높은 대학생이 주변인으로서 방어행동을 수행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상대방을 돕지 못한 것을 염려하고 양심의 가책에 대한 반응인 죄책감이 피해자를 위로하고 지지하는 방어행동을 증가시키는 예측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죄책감이 긍정적 행동을 유도하는 이차 정서 중 하나라는 사실을 견고히 해주는 결과를 증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Tangney & Dearing, 2002).

이는 죄책감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될수록 죄책감이 항상 부정적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기능적인 역할을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넷째, 임상 및 상담 현장에서 예방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실시할 때 도덕적 이탈과 죄책감 변인이 활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도덕적 이탈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높은 죄책감을 유발하여 사이버 불링 상황에서 더 많은 방어행동을 수행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도덕적 행동이 정확히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이 중요하다. 또 죄책감 역시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려는 태도가 더 의미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함께 교육한다면 죄책감의 긍정적 측면이 강화되어 더욱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모든 대학생들을 포함한 비임상군이므로 사이버 불링을 직접 목격한 임상군에 속한 대학생들은 다른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죄책감 변인의 억제효과가 시사되므로, 데이터의 표본부터 편차를 통제하여 분산구조의 원인을 해결한 뒤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표집 지역 확대와 더불어 표집 대상의 비율을 조정하고, 다양한 표집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자료를 수집할 때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했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도덕적 이탈과 방어행동의 경우, 응답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이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출처와 방법으

로 자료를 수집하고 사회적 바람직성을 평가하는 도구를 포함하여 이 부분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사이버 불링 상황에서의 방어행동을 측정하는 참여자 역할 유형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사이버 불링에서 주변인의 행동은 가해자 혹은 피해자의 특성이나 이들과의 친분, 그리고 피해의 정도 등과 관련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배제된 부분들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따라 주변인과 관련된 변인과 방어행동과의 관계만을 다루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단순히 방어행동이 방관행동의 반대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방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고유 변인들의 기제를 다양하게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 더불어 주변인의 역할인 방관행동이나 동조행동까지 함께 포함하여 경로 모형을 확장하여 살펴본다면, 사이버 불링에서 나타나는 대학생의 행동과 변인들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더욱 정교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전자매체 사용 빈도를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실제 참여자 개인마다 SNS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채팅, 이메일 등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가 다르고 이에 따라 사이버 불링에 노출되는 빈도나 정도도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참여자를 좀 더 세분화하여 분석에 활용한다면 더욱 정교한 연구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경찰청사이버안전국 (2019). 2019 사이버 범죄 통계 자료.
- 고아라, 최새은 (2016). 사이버 불링을 목격한 중학생 주변인의 실태 및 영향 변인 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8(4), 79-95.
- 곽금주 (1998). 자기효능감과 도덕적 이탈 (I).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1(1), 1-11.
- 국립국어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 김경연, 하영희 (2003). 죄책감, 도덕적 이탈, 및 친구의 규칙위반성향과 청소년의 규칙위반행동.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2), 39-52.
- 김민지 (2013). 정서적 공감, 자기효능감, 사회적 책임감이 또래 괴롭힘 방어 행동에 미치는 효과: 지각된 인기도의 중재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서울: 학지사.
- 김수영, 이지현 (2016). 문항묶음.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2), 327-353.
- 김신아, 방은혜, 한윤선 (2017). 청소년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 예측요인 탐색을 위한 국내연구 메타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5), 18-33.
- 김은아, 이승연 (2011). 남녀 중학생의 또래 괴롭힘 방어행동과 공감, 자기효능감, 학급 규준에 대한 믿음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1), 59-77.
- 남미애, 홍봉선 (2015). 학교폭력 주변인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아동복지학*, 50(2), 109-144.
- 류설영 (1998). 대인관계 상황에서 죄책감, 수치

- 심과 심리적 증상의 관계 연구: 일반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6).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 비교: 도덕적 이탈, 자기효능감, 가출, 학업성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2), 45-76.
- 박완경, 윤명숙 (2015). 대학생의 사이버 폭력 경험과 대인관계능력의 관계에 미치는 성인애착의 매개효과.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3(4), 5-30.
- 배병렬 (2014). Amos 21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청람.
- 서미정 (2008). 방관자의 집단 특성에 따른 또래 괴롭힘 참여 역할행동. 아동학회지, 29(5), 79-96.
- 서미정 (2013). 도덕적 이탈 및 도덕적 정서가 또래 괴롭힘에 대한 가해동조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4(6), 123-138.
- 서미정, 김경연 (2006).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주변또래 유형의 판별변인 분석. 아동학회지, 27(6), 35-51.
- 송경희, 이승연 (2010). 청소년의 마음읽기 능력과 또래괴롭힘의 관계: 도덕적 이탈, 도덕적 정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3), 105-124.
- 송수민 (2008).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경향성의 심리적 특성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1), 125-144.
- 송지연 (2016). 전통적,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인의 방어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서란 (2014). 중학생의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 도덕적 이탈과 또래 괴롭힘 방어행동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종국, 문민경 (2017). 자기애와 자기 효능감이 도덕적 책임감과 브랜드 애착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32, 411-430.
- 우종필 (2012). 우종필 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 유 경, 민경환 (2002). 아동의 도덕적 정서의 발달: 수치심과 죄책감. 심리과학, 11(1), 53-69.
- 유현욱, 홍혜영 (2015). 중학생의 또래애착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4), 977-999.
- 이수경, 오인수 (2012). 사이버 괴롭힘과 오프라인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3(2), 137-161.
- 이숙정, 윤은희 (2013). 폭력적 온라인 게임의 도덕적 이탈 단서. 한국청소년연구, 24(1), 219-241.
- 이승연 (2014). 중학생의 공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지각된 규준과 또래 괴롭힘 방어행동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3), 89-112.
- 이영기 (2016).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아 방어자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교육연구논총, 37(1), 255-277.
- 임상수 (2015). 반사이버불링 교육을 위한 체계적 접근. 윤리연구, 100, 95-130.
- 전대성, 김동욱 (2015).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사이버 불링 피해경험이 사이버 불링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사회참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9(3), 157-180.
- 정아혜 (2014). 유사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 여중생의 주변인으로서 반응 분석. 계명대학

- 교 석사학위논문.
- 조영은 (2017). 사이버 불링 상황에서 대학생의 주변인 행동 의도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화진, 서영석 (2010). 부모애착, 분리-개별화, 성인애착, 대학생활적응,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 대학신입생을 중심으로 -.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385-411.
- 최기원 (2012). 남녀 중학생의 도덕적 정서와 또래괴롭힘 방어 및 방관행동의 관계: 지각된 학급규준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유진, 전승우, 박준우 (2018). 부정적 정서와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담뱃갑 경고그림 평가와 금연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62(1), 199-232.
- 풍일척 (2018). 사이버 불링이 학습성과와 정서 조절능력 및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방송통신위원회 (2016). 2015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통계 자료.
- 홍명기 (2018). 사회학습이론을 적용한 대학생의 사이버 불링에 대한 연구: 현실친구와 가상친구의 영향력에 대한 비교.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솔지 (2014). 공감, 공정성, 도움행동의도 및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인의 도움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1(2), 39-60.
- 홍혜영 (1995).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lbiero, P., Benelli, B., & Altoè. (2008). Determinants of adolescents' active defending and passive bystanding behavior in bullying. *Journal of Adolescence*, 31(1), 93-105.
- Albouza, Y., d'Arripe-Longueville, F., & Corrion, K. (2017). Role of resistive self-regulatory efficacy and moral disengage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values and aggressiveness in athle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Research and Psychology*, 5(1), 209-217.
- Bandura, A. (2001). Social cognitive theory in cultural context. *Applied Psychology*, 51(2), 269-290.
- Bandura, A., Barbaranelli, C., Caprara, G., & Pastorelli, C. (1996). Mechanisms of moral disengagement in the exercise of moral ag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2), 364-374.
- Barchia, K., & Bussey, K. (2011). Predictors of student defenders of peer aggression victims: Empathy and social cognitive fac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5(4), 289-297.
- Basil, D., Ridgway, N. M., & Basil, M. (2008). Guilt and giving: A process model of empathy and efficacy. *Psychology & Marketing*, 25(1), 1-23.
- Beran, T., & Li, Q.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cyber bullying and school bullying. *The Journal of Student Wellbeing*, 1(2), 16-33.
- Bonanno, R. A., & Hymel, S. (2013). Cyber bullying and internalizing difficulties: Above and beyond the impact of traditional forms of bullying.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2(5), 685-697.

- Brody, N., & Vangelisti, A. L. (2016). Bystander intervention in cyber bullying. *Communication Monographs*, 83(1), 94-119.
- Fida, R., Tramontano, C., Paciello, M., Ghezzi, V., & Barbaranelli, C. (2018). Understanding the interplay among regulatory self-efficacy, moral disengagement, and academic cheating behaviour during vocational education: a three-wave study. *Journal of Business Ethics*, 153(3), 725-740.
- Floyd, D. L., Prentice-Dunn, S., & Rogers, R. W. (2000). A meta-analysis of research on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0(2), 407-429.
- Gini, G. (2006). Social cognition and moral cognition in bullying: What's wrong?. *Aggressive Behavior: Officia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Research of Aggression*, 32(6), 528-539.
- Hawkins, D., Pepler, D. J., & Craig, W. M. (2001). Naturalistic observations of peer interventions in bullying. *Social Development*, 10(4), 512-527.
- Johnson, J. F., & Connelly, S. (2016). Moral disengagement and ethical decision-making: The moderating role of trait guilt and shame. *Journal of Personnel Psychology*, 15(4), 184-189.
- Lancaster, B. P. (1999). Defining and interpreting suppressor effects: Advantages and limitations. In B. Thompson (Ed.), *Advances in social science methodology* (pp. 139-148). Stamford, CT: JAI Press.
- Lei, M., & Lomax, R. G. (2005). The effect of varying degrees of nonnormality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2(1), 1-27.
- Mackinnon, D. P., Krull, J. L., & Lockwood, C. M. (2000). Equivalence of the mediation, confounding and suppression effect. *Prevention Science*, 1(4), 173-181.
- Menesini, E., & Camodeca, M. (2008). Shame and guilt as behaviour regulators: Relationships with bullying, victimization and prosocial behaviour.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6(2), 183-196.
- Salmivalli, C., Lagerspetz, K., Bjorkqvist, K., Osterman, K., & Kaukiainen, A. (1996). Bullying as a group process: Participant roles and their relations to social status with in the group. *Aggressive Behavior*, 22(1), 1-15.
- Salmivalli, C., Voeten, M., & Poskiparta, E. (2011). Bystanders matter: Associations between reinforcing, defending, and the frequency of bullying behavior in classrooms.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40(5), 668-676.
- Schenk, A. M., & Fremouw, W. J. (2012). Prevalence, psychological impact, and coping of cyberbully victim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chool Violence*, 11(1), 21-37.
- Sherer, M., & Maddux, J. E.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2), 663-671.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Tangney, J. P. (1998). How does guilt differ from shame?. In *Guilt and children* (pp. 1-17). Boston: Academic Press.

- Tangney, J. P., & Dearing, R. L. (2002). Shame and guilt. *Guilford Publications* (pp.46-48). New York: Guilford Press.
- Tangney, J. P., Wagner, P. E., & Gramzow, R. (1989). The test of self-conscious affect (TOSCA), *Fairfax, VA: George Mason University*.
- Thornberg, R., & Jungert, T. (2013). Bystander behavior in bullying situations: Basic moral sensitivity, moral disengagement and defender self-efficacy. *Journal of Adolescence*, 36(3), 475-483.
- Witte, K. (1992). Putting the fear back into fear appeals: The 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 *Communication Monographs*, 59(4), 329-349.

원 고 접 수 일 : 2020. 01. 07

수정원고접수일 : 2020. 04. 30

게 재 결 정 일 : 2020. 07. 08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Bystander Defending Behavior in Cyberbully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Moral Disengagement and Guilt

Jeong Im You

Myongji University, Department of Counselling Psychology
Student

Hye Young Hong

Professor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moral disengagement and guil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the defending behavior of bystanders in cyberbully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nts were 477 university students.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mediating effects were verifi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self-efficacy had positive correlations with guilt and defending behavior, an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moral disengagement. Moral disengagement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guilt, and guil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defending behavi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defending behavior, moral disengagement and guilt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Additionally, moral disengagement and guilt had a sequential double mediating effect. These findings inform our understanding of ways to reduce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cyberbully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via the defending behavior of bystanders.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Cyberbullying, Bystander, Defending Behavior, Self-efficacy, Moral Disengagement, Guilt